일본에 사는 HIV양성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소개 한 팜플렛의 번역 (한국어)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약물 사용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면

만약 여러분의 친한 친구나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상담을 받았다면
이 팸플릿을 참조하셔서 대응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계기로 약물을 사용하는지, 그 배경을 소개해 드립니다.
약물 사용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문제임과 동시에
'살기가 힘들다'라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계기

인터뷰 조사(C조사)를 통해 밝혀진, 약물 사용의
주요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호기심에서…

"모두랑 함께 어울리고 싶어서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조금 지나자 놀기 위한 돈도 생활비도 바닥이 드러났고, 정신을 차려보니 친구들도 모두 떠나가고 없었다"

상대로부터 권유를 받아서…

"처음엔 섹스를 즐기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어느새 약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었다"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약물 때문에 직장도 잃고 말았다"

약물 사용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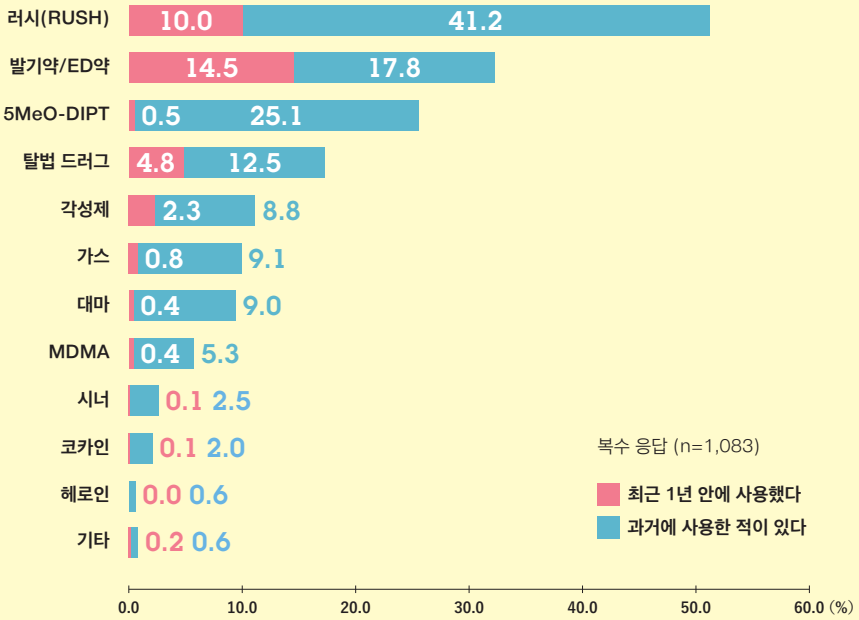
HIV 양성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A조사)에서는 55.0%의 사람이 지금까지 일정한 약물/드러그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약물의 종류에 따른 사용 경험률(최근 1년 안에 사용했다＋과거에 사용한 적이 있다)을 보면 전체 속에서 러시(RUSH)가 51.2%, 발기약/ED약은 32.3%, 5MeO-DIPT(고메오)는 25.6%, 탈법 드러그는 17.3%, 각성제는 11.1%의 HIV 양성자가 각각 사용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1년간의 사용 경험에 한정하면 발기약/ED약 사용이 14.5%로 가장 많고, 러시(RUSH)가 10.0%, 탈법 드러그가 4.8% 순으로 이어집니다.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HIV 양성자가 처음으로 약물을 사용한 시기에 대해서는 HIV 감염이 판명되기 전부터 사용했던 사람이 감염을 안 후에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보다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섹스할 때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약물 사용은 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강의 문제이며, 만남과 사랑 등 인간관계를 넓혀 나가는 과정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약물 중 5MeO-DIPT는 2005년까지, 러시(RUSH)는 2006년까지, 탈법 드러그(위험 드러그)의 일부는 2014년까지 각각 법규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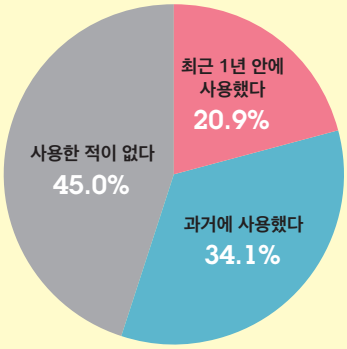
HIV 양성자 전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발기약/ED약의 응답에는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것 외에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입수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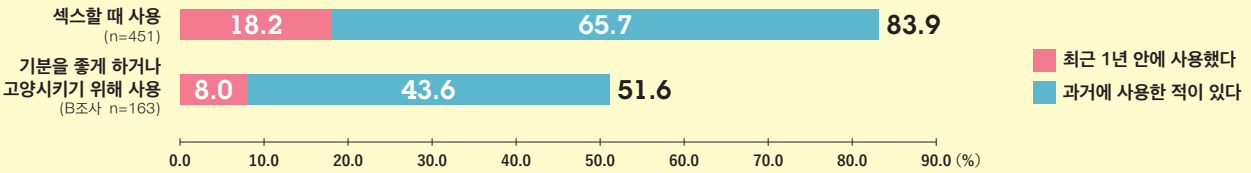
HIV 양성자와 약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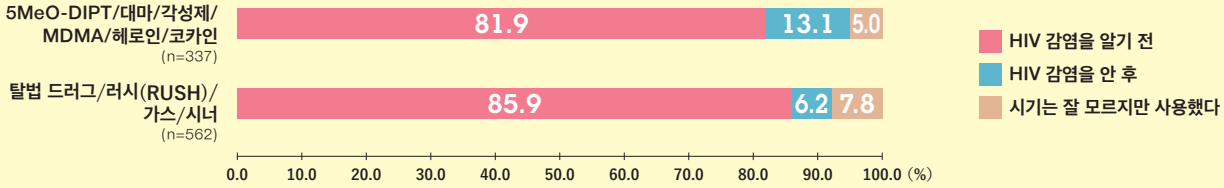
(n=1,084)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HIV 양성자

어떤 때에 약물을 사용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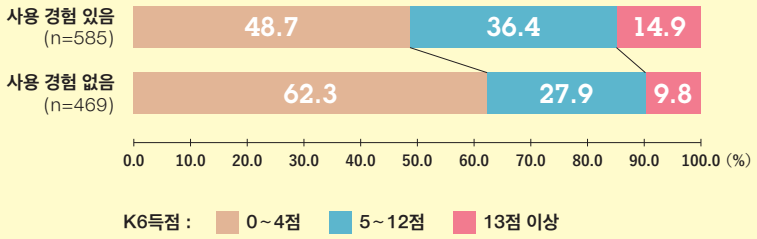


약물을 처음 사용한 시기



약물 사용의 영향

약물 사용과 정신적 건강



마음의 건강을 측정하는 정신건강도 K6이라는 척도에 따르면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정신적 건강도가 나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척도에서는 고득점일수록 정신적 건강이 나쁘다. 5점 이상이면 마음에 일정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 13점 이상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컷오프값: 5점/13점.

약물 사용과 HIV 감염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섹스할 때 콘돔을 사용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HIV는 물론 HCV(C형 간염 바이러스)와 성감염증 등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또한 HIV의 통원 치료를 쉽게 중단하게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게다가 몇 개의 약물 중에는 HIV 치료약과의 상호작용으로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담 상황 및 요구되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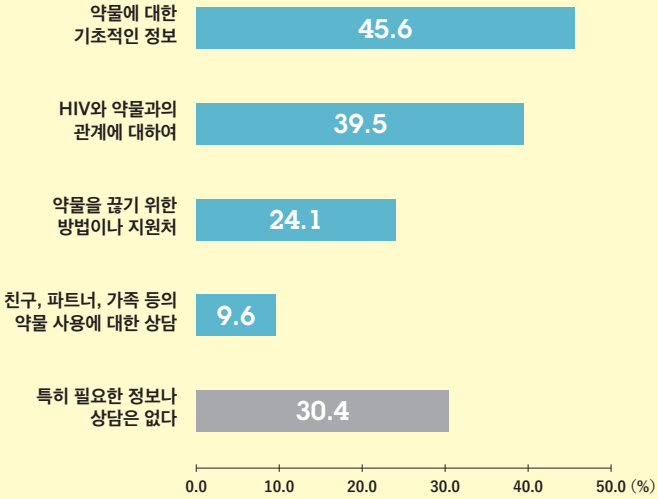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HIV 양성자는 실제로 전문가보다는 가까운 친구, 파트너, HIV 양성자 지인에게 상담을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HIV 양성자

누구에게 상담하고 있는가

복수 응답 (n=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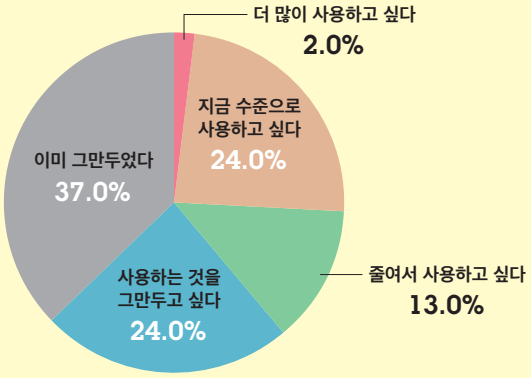
약물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복수 응답 (n=572)

향후 사용한다/하지 않는다?

최근 1년 안에 약물을 사용한 사람 (20.9%) 의 향후 사용 의향



B조사 (n=54)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일은…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장소를 늘리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약물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전문 클리닉도 있고, 또 NA 등 당사자끼리 서로의 회복을 서로 돕는 자조 그룹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정신보건복지센터와 보건소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눈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도, 정작 본인은 '문제 없어, 괜찮아'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우선은 상담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건네 줍시다. 언젠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이 고민에 빠지거나 불안한 경우,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기관이나 전문기관은 다양합니다. 여러 군데를 이용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그룹, 상담 서비스에 대하여

- ➪ '드러그 OK 토크' http://www.ok-talk.com/
  드러그에 관한 내용, 무엇이든 OK 핫라인 (☎090-4599-6444, 수/금요일 12~18시)
- ➪ '프리덤' http://www.freedom-osaka.jp/
  약물의존 상담전화 (☎06-6320-1196, 토요일 15~19시)
- ➪ '나르코틱스 어나니머스 일본 (NA Japan)' http://najapan.org/
  당사자끼리 서로의 회복을 서로가 돕는 자조 그룹
- ➪ '나라논 (Nar-Anon)' http://www4.ocn.ne.jp/~nar633/
  약물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한 자조 그룹
- ➪ '일본 다르크 (DARC) 본부' http://www.darc-dmc.info/
  입소/통소형 약물의존증 재활시설
- ➪ '가족의 약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께' http://www.ncnp.go.jp/nimh/yakubutsu/drug-top/data/family/H25.family_all_date.pdf
- ➪ 'HIV 맵' http://www.hiv-map.net/
- ➪ 'Futures Japan' http://futures-japan.jp/
- ➪ '플레이스 도쿄 (PLACE TOKYO)' http://www.ptokyo.org/
  HIV 양성자의 상담 서비스 등

이러한 리소스는 일본어에 따른 서비스를 소개하고있읍니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역의 HIV 양성자 등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 http://www.chiiki-shien.jp/

문의처: (우)169-0075 도쿄도 신주쿠구 다카다노바바 4-11-5 미유키 하이츠 403 특정비영리활동법인 플레이스 도쿄 연구사업부

조사 개요:
후생노동과학연구비 보조금 에이즈 대책 연구사업
지역에서 HIV 양성자 등의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연구(대표: 다루이 마사요시)
'HIV 양성자의 건강과 생활에 관한 실태 조사'
A조사…ACC와 전국 8지역 블록 거점 병원의 합계 9개 병원에 통원하는 HIV 양성자 1,786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조사표를 배포, 1,100표 회수(회수율 61.6%). 2013년 7월~12월 실시.
B조사…핵심 거점 병원 등 22개 병원에 통원하는 HIV 양성자 687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조사표를 배포, 369표 회수(회수율 53.7%). 2013년 8월~2014년 4월 실시.
'약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청취 조사'
C조사…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HIV 양성자인 게이 · 양성애자 남성/MSM 19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질문지 조사 및 반구조화 면접을 2013년 9월~11월에 실시.
※그래프의 데이터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 이외는 모두 A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고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집: 지역에서 HIV 양성자 등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연구반 디자인: 신도 다케시 일러스트: 시라이시로 발행년월: 2015년 3월